

중동사태 장기화...석유화학 공장 '셋다운' 현실화

여천 NCC에 이어 LG화학 일부 중단...한계점 임박
정부, 자원 안보 주의 격상·경제안보품목 한시 지정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나프타(납사) 수급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셋다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동발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 실제 원료 공급 차질로 이어져 공장 연쇄 셋다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석유화학기업 LG화학이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수급난으로 공장 가동을 하향 조정해 이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앞서 여천NCC도 공급불가항력 선언 및 차질 가능성을 통보한 바 있다.

'공급불가항력'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선언하는 조치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원료 수급 문제로 이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LG화학은 여수에서 1공장(120만t), 2공장(80만t)을 가동해오고 있는데 이날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2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나프타 물량 확보 문제로 인해 가동률을 공장 운영 마지노선을 낮추는 등 버티기 운영에 들어갔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약 70%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역시 수입 물량의 약 54%가 해당 해협을 지나

국내로 들어온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출발점이다. 국내 공급 구조는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물량이 약 50~60%. 수입이 40~50% 수준이며 이 중 상당량이 중동산이다.

실제 나프타 물량이 중동을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기까지 통상 20여일 소요되는 구조상, 지난달 말 이후 중동으로부터 추가 공급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가 보유한 나프타 재고는 평균 2~3주에 불과하면서 이날 말~다음 달 중순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또 중동 사태로 배럴당 600달러 수준이던 나프타 가격이 1100달러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업체가 제품을 생산해도 오

히려 손해가 나는 적자구조가 조성됐다.

이 같은 NCC 가동 연쇄 중단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기초 소재 공급 축소로 이어져 전방 제조업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해 수출 제한 및 비축유 방출 준비에 들어갔다.

또 납사 수급 불안에 대응해 업계와의 소통을 진행하는 한편 대체 물량 도입을 지원 중이며 대체 나프타 수입 시 발생할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반영도 추진 중이다.

윤용성 기자 yon1404@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한국전력은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AI 경영혁신 선포식을 개최하고, AI와 에너지의 결합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AI 플랫폼 사업자로서 도약하겠다는 비전(The Best Energy AI Platform Provider)과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전력, 'AI 3대 강국' 도약 전인한다

경영혁신 선포...5대 중점전략 로드맵 제시

한국전력이 세계 최고 에너지 AI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꿈꾼다.

한국전력은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AI 경영혁신 선포식을 개최하고, AI와 에너지의 결합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AI 플랫폼 사업자로서 도약하겠다는 비전(The Best Energy AI Platform Provider)과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김동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김동철 사장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입장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AI가 주도할 전력산업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 등 복잡한 난제 해결을 위해 AI를 경영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고객감동·안전·ESG 경영 전반은 물론, 전력 공급의 전 과정에 AI를 본격 도입해 전력망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발표된 한전의 AI 대전환 로드맵은 데이터, 솔루션, 인프라, 거버넌스·협력체계, 역량·문화로 5대 중점 전략으로 발표했다. 전력데이터에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는 데이터 은폐로 지 구축을 통해

AI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나주와 대전 데이터센터 두 곳을 AI데이터센터로 전면 전환하고 고성능 GPU자원을 확충해 AI솔루션을 구동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AI 위험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유일의 AI 전문 연구기관인 한전 AI연구소와 켄텍(KENTECH) 등과의 협업체제도 갖춘다.

이율러 'AI First' 문화 조성을 통해 핵심 인력의 확충과 전문 역량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은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AI혁신단'을 중심으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 전력망 적기 건설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

이다. 이번 선포는 국가 AI 정책을 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한전의 강력한 실행의지를 담고 있다.

'한전의 AI 대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명감 아래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며, 정부의 AI-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연계해 AI를 통한 전력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할 방침이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의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본원 사업인 전력망 효율을 극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혁신이다"며 "에너지와 AI의 융합을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방위적 경영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글로벌 전력산업 거처사슬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는 에너지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해 대한민국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n0918@gwangnam.co.kr

금호타이어-넷플릭스 '맞손'...안전 캠페인 협업 극장 비상대피도 안내광고...OTT 서비스 공간 진출

금호타이어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넷플릭스와 손잡고 새로운 형식의 브랜드 캠페인 '금호타이어 넷!가이드'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넷플릭스 콘텐츠가 시작되기 전 상영되는 안전한 시청 안내 캠페인으로, 집 밖과 집 안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 지켜야 할 안전 가이드를 제시한다. 금호타이어 대표 캐릭터 '토로'와 '로로'가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게임' 참가자로 등장하며, 본 콘텐츠를 즐기던 시청자에게 '엘렉 콘텐츠'로 인식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캠페인 영상에는 금호타이어와 넷플릭스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넷플릭스의 시그니처인 '투툼(TUDUM)' 사운드도 금호타이어만의 해석이 반영된 음원으로 연결된다.

이번 시리즈를 시작으로 넷플릭스 작품과 토로&로로의 색다른 시리즈가 연간 3단계에 걸쳐 추가 오픈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부터 CGV와 함께 토로, 로로를 활용한 극장 비상대피도 안내광고를 집행해왔으며, 고객 안전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호감도를 높여왔다. 이번 캠페인은 금호타이어의 안전 헤리티지를 오프라인 극장을 넘어 OTT 서비스 공간으로 확장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은 "이번 협업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진행한 최초의 기업 브랜드 파트너십 사례로, 금호타이어의 캐릭터가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나 소비자에게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토로'와 '로로'는 2010년 개발된 캐릭터로 소비자들에게 타이어의 기능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금호타이어'라는 기업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있다. 넷플릭스 광고를 비롯해 TV광고, CGV 극장 대피도 안내 광고 및 플랫폼 비상 대피도 안내 광고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

AICA, AI사관학교 인재 창업 성공까지 지원

인공지능사관학교 수료생 대상...내달 17일까지 모집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이 인공지능사관학교 수료생의 창업을 지원해 지역 산업 경쟁력 향상에 나선다.

AIC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26년 AI 특화 창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사관학교 수료생의 AI 기술 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 교육을 넘어 창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 시제품 제작, 투자 연계 등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AICA는 수료 이후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창업 성공률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기초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단계별 평가를 통해 AI 특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인공지능사관학교 수료생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의 기창업 기업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0명 내외를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4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aica_hrd@aicluster.or.kr) 및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며, 창업 아이템의 타당성, 시장가능성, 실행역량, 기술성 등의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에는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창업 기초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사업계획서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BM) 검증은 물론 시제품 제작과 기술 구현을 위한 사업화 자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운영된다. 선정된 팀에게는 협약 체결 이후 초기 사업비가 지급되며, 6월부터 10월까지의 오프라인 교육과 개별 멘토링이 병행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차에서 집안 가전 제어... '카투홈' 서비스 개시

삼성전자, 현대차·기아와 협력...원격 제어 지원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해 차량에서 집 안에 있는 생활가전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카투홈(Car-to-Home)'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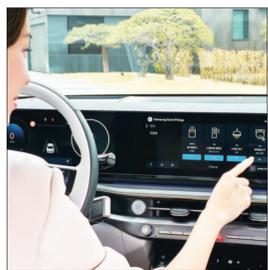
삼성전자와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9월 집 안에서 차량 제어가 가능한 홈투가 서비스를 론칭한 데 이어 카투홈까지 선보이며 집과 차량을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서비스에 본격 나선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는 차량 내에서 스크린 터치로 집 안의 에어컨,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조명 등 스마트싱스 '귀가 모드'를 통해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에 연결된 카투홈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

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현대 블루링크·기아 커넥트 서비스 이용 고객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설치된 스마트싱스 앱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스마트싱스 계정을 연동해 손쉽게 카투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의 스마트 루틴 기능도 차량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귀가 중인 차량의 위치가 집과 가까워지면 '귀가 모드'를 통해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조명이 켜지며 사용자를



맞이한다. 특히 여름철 귀가 시 에어컨을 켜서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

외출 시에는 차량 위치가 집에서 멀어지면 '외출 모드'가 실행돼 집 안의 모든 조명과 불필요한 가전 전원을 끄고 로봇청소기를 가동한다.

이처럼 집과 차량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알아서 연결돼 나에게 맞춰주는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지난해부터 적용된 홈투가 서비스는 사용자가 스마트싱스 앱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공조, 시동, 문 잠금·해제, 전기차 충전 시작·종지 등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삼성전자 AI플랫폼센터 스마트싱스팀 정재연 부사장은 "이번 카투홈 서비스 론칭은 단순히 기능을 추가한 것을 넘어 고객들이 집과 차량 두 공간에서 하나의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준다"며 "앞으로도 현대차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모빌리티와 주거 환경을 잇는 차별화된 연결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